

## 차베스 정부 시기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조돈문\*\*

단독/가톨릭대학교

**Cho, Donmoon (2013), "Labor Conditions of Venezuelan Workers Under Chávez"**

### ABSTRACT

While it is widely agreed that the Chávez governmen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labor unions based on its pro-labor stance,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over whether labor conditions have become better or worse, and whether labor unions have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additional concerns address whether labor unions have strengthened its organizational capacity.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ssess whether labor conditions have improved or not under Chávez, and to analyze how such a change in labor conditions has been brought about; we also identify some of the methods by which the regime of labor operates in relation to the Chávez government.

During the Chávez era, there is little evidence to confirm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except for the drop i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currently higher than the average income growth. Venezuelan workers did not improve their labor conditions owing to weakening labor unions which were unable to expand the coverage of collective contracts.

Three mechanisms could be identified as constraints on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1] active intervention by the Chávez government in labor union activities, guided by a strong ideological bias, 2] the ever-intensifying internal strife within the pro-Chávez labor union movement with the growing supremacy of a corporatist fraction, and 3] the criminalization of union strikes which are denied legal recognition.

These three mechanisms have been produced and reproduced within the power structure with Chávez at the peak of the hierarchy. This type of pseudo-corporatist regime is designed with the objective of labor control. The labor union movement is in the position of an inferior partner of the regime, and is supposed to follow the directions

---

\* 본 연구는 201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M-2012-B0002-00138)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유익한 논평을 준 논평자 세분과 조교 김직수님께 감사를 표한다.

\*\* Donmoon Cho is professor of sociology at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Email: chodon333@gmail.com).

given by the ruling party and its government without any contention. This political design results in the abandonment of union autonomy along with the concerns for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Key Words:** labor condition, labor-government relationship, labor union, collective contract, pseudo-corporatism, corporatist, classist / 노동조건, 노정관계, 노동조합, 단체협약, 의사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파, 계급주의파

## 문제의 제기

차베스 정부가 제4공화국에 비해 더 친노동계급적 성격을 지녔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 여부와 노동조합 활동 및 노정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노동조건 부분을 보면, 차베스 정부는 출범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비공식부문이 축소되었으며, 노동자들의 법정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중남미 최고 수준에 달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AVN 2012; Pearson 2011c; Reardon 2011b; Robertson 2012a). 반면,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들(Lucena 2008; 2009; Perlasca 2011; Aranguren 2010)은 실업률 하락 현상은 인정하지만 고용불안정이 증대되었고 공공부문에 비해 사적부문의 경우 낮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남발하는 가운데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원들에 대한 청부살인 범죄가 확산되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측면을 보면,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 노동조합과 정부 및 정당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며 차베스 정부와 제5공화국 시기와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차별성과 변혁성을 강조하는 연구들(Wilpert 2007; Lebowitz 2006; Ellner 2008; Gómez 2012)은 차베스 정부 들어 노동자들이 공동경영의 주체가 되어 기업 경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며 볼리바르 혁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노동조합들이 차베스 정부 초기 정권 전복을

위한 정치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지만, 2004년 8월 차베스 소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이후 노동조합들은 탈정치화 과정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요구를 위한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며 생산현장에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반면, 차베스 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들(Lucena 2008; 2009; 2010a; Iranzo 2011; Iranzo and Richter 2008; Hernandez and Richter 2010; Chirinos et al. 2010)은 차베스 정부가 계급적 성격에서 제4공화국과 차별성을 보이지만 노동조합 활동과 노정관계에서는 제4공화국과 상당한 연속성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들 연구들은 차베스 정부의 노동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은 의미미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정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정책 내용과 추진 방식에서 차베스 정부와 제4공화국의 차별성은 약하다고 진단한다. 또한 노동조합들이 정부와 정당에 의한 적극적 개입과 통제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내부 분열을 겪으며 조직력 약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조건 개선 혹은 악화가 차베스 정부의 차별성 혹은 연속성과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차베스 정부의 차별성 혹은 연속성이 어떻게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조건 개선 혹은 악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차베스 정부 시기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 혹은 개악되었는지를 검토한 다음, 노동조건 개선 혹은 개악 과정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노동체제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자들의 존재조건

###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차베스 정부 출범 이후 2002년과 2003년 석유산업 중심 반차베스 총파업직 폐쇄책으로 인해 GDP가 연속 9%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경제성장

률이 정상화되며 2002년 15.7%에 달했던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6.1%까지 떨어졌다(표 1. 참조).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연이은 2%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여 6.5%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표 1. 거시경제 지표 및 노동시장 실태 변화

	GDP 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공식부문 취업(%)	비공식부문 취업(%)
1998	0.17				
1999	-6.19	64.2	10.6	45.0	55.0
2000	3.24	65.3	10.2		
2001	2.67	67.6	11		
2002	-8.50	69.9	15.7		
2003	-9.50	69.2	14.6	47.3	52.7
2004	17.90	68.2	10.9	51.1	48.9
2005	9.30	65.4	8.9	53.3	46.7
2006	7.00	65.6	8.4	54.7	45.3
2007	8.40	65	6.2	55.9	44.1
2008	4.80	65.4	6.1	56.6	43.4
2009	-2.90	66.2	6.6	56.0	44.0
2010	-1.49	65.7	6.5	56.2	43.8
2011	4.18	64.9	6.5	55.0	45.0

자료: BCV, INE에서 산출.

이러한 실업률 하락은 주로 공공부문의 고용규모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 사적부문 고용규모는 754.7만 명에서 962.7만 명으로 27.5% 증가한데 그친 반면, 공공부문 고용규모는 129.3만 명에서 231.8만 명으로 79.2% 증가했다(Puentes 2010). 그 결과 공공부문이 전체 고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6%에서 19.6%로 증가했고, 이러한 공공부문의 상대적 팽창은 공식부문의 상대적 비중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과 2009년 사이 공식부문이 47.3%에서 56.0%로 확대됨으로써 비공식부문의 취업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비공식부문은 2011년 현재 45%로서 1999년 55%에 비해 크게 감축된 것이다(Pearson 2011c). 비공식부문의

절대적 규모 역시 2008년에는 43.4%까지 감축되었었지만 2009-2010년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다시 확대되어 45%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차베스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은 표 2에서 보듯이 크게 증가했는데 1998년과 2010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규모의 절반 가까이 접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증가율을 고려하면, 비교 가능한 시기인 2000년과 2010년 사이 최저임금은 144 볼리바르에서 1224 볼리바르로 8.5배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7.4배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기간 동안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최저임금 및 취업자 소득 변화 추이

	최저임금 (Bs)	취업자소득(1997=100)			소비자 물가 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전체취업자	사적부문	공공부문		
1997	75.00	100.0	100.0	100.0		
1998	100.00	154.0	167.2	119.1		
1999	120.00	189.7	207.8	141.8		
2000	144.00	230.9	242.1	201.3	16.2	100
2001	158.40	266.6	274.2	246.4	12.5	112.5
2002	190.08	288.0	298.9	259.5	22.4	137.8
2003	247.10	324.0	336.6	290.8	31.1	180.6
2004	321.24	392.9	387.0	408.5	21.7	219.9
2005	405.00	462.8	446.0	507.3	16.0	255.0
2006	512.33	550.0	509.3	657.3	13.7	289.8
2007	614.79	691.9	625.9	865.9	18.7	344.0
2008	799.23	839.3	778.2	1,000.4	31.4	452.2
2009	967.50	1,033.3	964.0	1,216.0	28.6	581.4
2010	1,223.89	1,244.8	1,210.0	1,336.8	29.1	743.8
2011		1,721.8	1,570.8	2,120.1	27.1	

자료: Mintrass, BCV

\*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포함.

\* 매년 12월 기준. 2002년 실업률, 취업률은 11월 기준. 월 소득은 3/4분기.

평균임금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임금노동자와 함께 자영업자도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의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1998년과 2011년 사이 전체 취업자의 평균 소득이 11.18배 증가한 가운데, 사적부문이 9.4배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17.8배 증가함으로써 사적부문의 두 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며 평균소득 증가 추세를 주도했다. 실질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과 2010년 사이 사적부문 소득은 5.0배, 공공부문 소득은 6.6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7.4배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도리어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사적부문의 경우 공공부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공부문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던 것은 분명하며,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사적부문에 비해 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식품비 지원 등의 부가혜택들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베스 정부 하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사적부문에 비해 훨씬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ucena 면담 2009; Lucena 2008, 11-14).

표 3. 불평등 지표 변화 추이

	Gini 계수	최하위 20% 소득점유율	최상위 20% 소득점유율	상위20/ 하위20	빈곤가구 (%)	극빈가구 (%)
1997	0.4874	4.10	53.58	13.07	48.1	19.3
1998	0.4865	4.06	53.36	13.14	43.9	17.1
1999	0.4693	4.36	51.90	11.9	42.0	16.9
2000	0.4772	3.95	52.28	13.24	40.4	14.9
2001	0.4573	4.45	49.55	11.13	39.0	14.0
2002	0.4938	4.40	54.13	12.3	48.6	21.0
2003	0.4811	4.01	52.83	13.17	55.1	25.0
2004	0.4559	3.53	54.77	15.51	47.0	18.6
2005	0.4748	4.63	52.36	11.31	37.9	15.3
2006	0.4422	4.73	49.37	10.44	30.6	9.1
2007	0.4237	5.09	47.70	9.37	28.5	7.9
2008	0.4099	5.41	46.73	8.64	27.5	7.6
2009	0.4183	5.80	47.50	8.19	26.7	7.5
2010	0.3898	5.7	44.8	7.86	26.9	6.9
2011	0.3902	5.7	44.8	7.86	26.5	7.0

자료: INE

\* 매년 12월 기준. 빈곤층/극빈층(가구) 비율 하반기.

최저임금과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면, 평균소득에 비해 최저임금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표 3에서처럼 지니계수는 1998년과 2011년 사이 0.4865에서 0.3902로 크게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소득분위 하위 20% 소득점유율 대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의 상대적 크기는 13.14배에서 7.86배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베스 정부 하에서 노동조건 전반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개발프로그램 등 노동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삶의 조건 개선에 매진한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공식경제 부분의 노동자, 특히 조직 노동자들이 사회경제적 위계 구조의 최저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기득권을 지니는 층위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노동조합 조직화와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꾸준히 조직되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 등록된 노동조합 숫자는 4,649개에 달한다(표 4. 참조). 하지만 전체 노조원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Iranzo and Richter 2008, 103-104; Provea 2008, 148). 이처럼 노조원 숫자 증대가 수반되지 않는 노동조합 숫자 증대는 신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열을 거듭한 때문이며, 그 결과 단위 노동조합의 규모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의 분열로 조직노동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국민적 정당성은 더욱 실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 조직율은 15-2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Iturraspe 면담 2008; Lucena 면담 2010).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부문 종사자로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되지 않았고, 사적부문은 대다수 기업들이 영세한 규모로서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반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율은 30% 수준으로 사적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역시 피고용자의 45% 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거의 되지 않은 탓으로 전체 노동조합 조직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숫자 추이

Año	단체협약 체결 숫자	단체협약적용 노동자 숫자	노동조합 신규등록 숫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조활동가 살해*	노사분규
1999	491	175,932	208			
2000	753	1,590,678	296			
2001	741	1,950,046	525			
2002	640	371,072	488			
2003	535	2,577,246	498			
2004	834	1,648,226	498	38,434		
2005	564	391,098	556	45,575		
2006	538	472,580	662	35,848		
2007	642	2,013,470	629	35,627	48	372
2008	562	160,328	620	51,500	29	510
2009	360	416,389	391	78,594	46	1187
2010	540	2,308,542	321	40,298	68	1121
2011					36	989*
합계	6,639	13,659,218	4,649			

자료: Provea(2008, 2009, 2010)에서 산정함.

\* 노조활동가 살해는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9월까지임.

\* 2011년 노사분규 건수는 상반기 한정함.

노동조합 조직화의 부진으로 인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보호·신장에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했으며, 차베스 정부 시기 도리어 악화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연도별 체결된 단체협약 숫자가 차베스 정부 초기에 비해 2000년대 후반에 도리어 감소하면서 전체 피고용자 대비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지만 사용자측에 의해 단체교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사적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이 거부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rovea 2011, 223). 또한 단체교섭이 시작되어도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2009년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1,223건에 달했지만 그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건수는 360건으로서 29.4%에 불과했다(Provea 2010, 123).

사측은 이처럼 단체협약 체결을 기피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도 위반하며



부당해고자 복직 판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건수가 362건이며 그 가운데 272건에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Provea 2011, 118). 노동조합 활동에 가장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폭력, 특히 청부살인(sindicariato)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Provea에 의해 확인된 노조활동가 청부살해 건수만 해도 2007년에서 2011년 까지 5년 동안 총 227건으로서 연 평균 45명에 달하고 있다(표 4. 참조). 이렇게 살해된 노조활동가들은 주로 노조 지도자들이며, 볼리바르주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었으나 점차 전국·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진과 정부관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무수한 청부살인 사건들 가운데 범인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어 차베스 정부와 사법부의 법집행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Provea 2008, 140-141; Provea 2011, 121-122).

이처럼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영향력이 증진되지 않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의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거나 보호 대상 노동자들의 비중이 확대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차베스정부와 코포라티즘 체제

차베스정부 시기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약화와 단체협약 적용률 하락으로 노동조건 개선에 실패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강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제약한 메커니즘들로는 차베스정부의 개입주의 노동정책,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분열과 파업활동의 범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차베스정부의 개입주의 노동정책

차베스는 집권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부터 노동법(LOT) 138조에 명시된 노사정 기구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발표해 왔는데, 인상률은 대체로 물가상승률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sup>1</sup>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매년 노사교섭 혹은 협의 없이 임금인상률을 차베스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처럼 차베스 정부는 노사정협의기구나 단체교섭 절차를 경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해왔다(Iranzo 2011, 32; Hernandez and Richter 2008, 418; 2010; Lucena 2009, 11-14). 한편, 국유화 기업들의 경우도 국유화 이후 임금 등 노동조건은 개선되었지만 노동조합의 개입 없이 하향식 의사결정 및 집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ucena 2010a, 427; Mather 2010). 이처럼 차베스 정부는 친노동적 노동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도 대체로 노동조합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차베스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1999년 12월 발효된 볼리바르 헌법은 제293조 6항에서 국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NE(Consejo Nacional Electoral)를 통해 노조활동에 개입할 수 있게 했고, CNE는 노동조합 선거들을 소집, 조직, 지도, 감독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Provea 2010, 117; Iranzo and Richter 2008, 100-101). 하지만 CNE는 노동조합 선거를 관리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크게 제약하게 되었다. CNE는 2004년 8월의 차베스소환 국민투표, 2005년 12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2006년 12월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국민투표와 전국적 선거들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투표 관장을 기피한 결과 노동조합들의 90%가 예정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Iranzo and Richter 2008, 100-101; Provea 2009, 100). ILO가 CNE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및 노조활동 방해를 비난하는 가운데 사법부는 노동조합이 CNE의 입회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해 엇갈린 입장들을 표명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결국 2009년 8월 법개정으로 노조 집행부 선거는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뀌게 되었다(Tremont 면담 2009).

차베스 정부는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의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노동기본권에 대해 자의적으로 인정·불인정을 선택하며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개입은 정부가 노동정책 집행자뿐

---

1 차베스 정부의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발표 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Provea(2008, 138-140; 2010, 121-123; 2011, 112), Boothroyd(2012a), Reardon(2011b), Pearson(2011c)을 참조할 것.

만 아니라 사용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부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유석유회사 PDVSA 사장 겸 에너지석유 장관 Rafael Ramirez는 “혁명의 적들과는 단체협약 교섭을 하지 않을 것”, “사회주의 노동자 전위가 선출하는 대표들에게 단체협약 교섭권이 있으므로, 혁명가들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게 될 것”(El Universal, 2009.07.15; Provea 2009, 102)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공언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베스 정부는 노동조합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CNE를 통해 노동조합 선거를 관장하는 한편, 단체협약 체결권자 인정 여부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조지도자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고 편향적으로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차베스정부는 노동통제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나 단체협약 적용 확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분열

차베스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방식은 노동조합 활동, 특히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분열을 고착화하며 노조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노동조건 개선에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는 방향이었다.

CTV 위원장 퇴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이어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친차베스 진영의 FBT(Fuerza Bolivariana de Trabajadores)가 참패하면서 독자 노총 건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고, CTV가 Fedecámaras와 연대하여 일련의 반차베스 정치 총파업을 진행하자 FBT는 CTV를 탈퇴하여 2003년 4월 UNT를 창설했다.<sup>2</sup> UNT의 주축인 FBT는 창립총회 당시 유력한 UNT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던 CCURA(Corriente Clasista, Unitaria, Revolucionaria y Autónoma)의 Orlando Chirino와 CTR(Colectivo de Trabajadores de Revolución)의 Marcela Maspero를 추방하면서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분열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2006년 5월 치러진 UNT의 제2차 총회는 위원장 선거 시기를 둘러싼 극한적 대립과 폭력행위로 파행을 맞게 되었다. 결국 UNT는

2 UNT 창설 과정 및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의 대립갈등에 대해서는 조돈문(2010a)을 참조할 것.

창립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껏 위원장 선거와 정관 채택을 위한 제3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UNT 내부 갈등의 양축은 CCURA를 중심으로 한 계급주의파 세력과 FBT를 중심으로 한 코포라티즘파 세력이었고, 제2차 총회 개최 당시 계급주의파 CCURA가 다수파를 구성한 반면 FBT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결여한 채 차베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소수파 연합을 주도했다. 제2차 총회 이후 핵심 쟁점이 위원장 선거 시기에서 노동조합 자율성 문제로 옮겨가게 되면서,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 사이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 12월 대선 승리 이후 차베스가 새로운 정당 PSUV(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의 창당 추진을 선언하며 코포라티즘파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차베스가 2007년 3월 PSUV 창립대회에서 노동조합 자율성을 “독극물”(veneno)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Libertario 2008) CCURA를 반혁명 세력으로 공개 비난하자 CCURA는 지도부가 연명한 공개서한을 통해 혁명프로그램의 수호를 위해서도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이 필요하다고 차베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2차 총회 이후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통합과 UNT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었는데, 대체로 두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3</sup> CCURA와 CTR 등 계급주의 시각을 지닌 세력들은 UNT 재건을 추진한 반면, FSBT(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 구 FBT)를 중심으로 한 코포라티즘파는 UNT의 유용성을 부정하며 새로운 노총 건설을 추진했다. FSBT는 UNT 제2차 총회 무렵부터 CCURA의 Chirino와 CTR의 Maspero가 UNT를 장악하기 위해 노동부에 맞선다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PSUV의 적극 참여 입장을 천명하고 2007년 중반 PSUV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UNT 소멸과 새로운 노총 건설을 공공연하게 주창하고 나서며 UNT 재건파와의 갈등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CCURA와 차베스의 대결구도에 부담을 느낀 CCURA 내 온건파는 노동조합 자율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PSUV에 합류하기 위해 CCURA를 탈퇴하여 Marea Socialista를 조직했다. Marea Socialista는 FSBT의 CCURA와 CTR 등 계급주의파를 배제한 별도 노총 건설 흐름을 비판하며 CCURA와 CTR를 포함한 UNT 재건을 주창했지만, 이러한

3 UNT 재건파와 새 노총 건설파 사이의 갈등 과정에 대해서는 CCURA(2007a; 2007b), FSBT(2007), Vera(2007), ABN(2007), Iranzo(2011)을 참조할 것.

CCURA의 분열은 계급주의파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한편 UNT의 강화를 더욱 어렵게 했다.

FSBT는 2011년 11월 CBST(Central Bolivariana Socialista de Trabajadores y Trabajadoras de la Ciudad, el Campo y el Mar)를 창설했고, Will Rangel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차베스는 2003년 UNT 창립총회 당시 행사 참여를 거부하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CBST 창립대회에 참여하여 축하연설을 했고, 대통령 홍보물(Prensa Presidencial 2011)을 통해 CBST 창립사실을 즉각 보도함으로써 차베스의 코포라티즘파 편에 의증을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UNT를 창설했던 친차베스 노동진영은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코포라티즘파가 별도로 CBST를 창립함으로써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는 UNT와 CBST로 분립되는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게 되었다.

UNT는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자율성과 전투성을 지닌 반면, CBST는 차베스 정부에 예측적이며 노동조합 자율성과 전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Marea Socialista는 CTR과 공산당 PCV(Partido Comunista de Venezuela) 측과 함께 UNT 재건을 적극 추진했지만 FSBT가 차베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CBST를 창설하자 2012년 8월 UNT를 탈퇴하고 CBST에 가입했다. Marea Socialista는 노동조합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CBST의 관료주의적 성격과 정부에 대한 예측적 관계를 비판하면서도 차베스가 CBST만을 대화상대로 인정한다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CBST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한편 2012년 말에는 Sidor 노조내 분파갈등으로 인해 Marea Socialista 지도자 Stalin Perez가 PCV측 지도자 Oscar Figueras와 “부패한 마피아” 등 극단적 언어를 동반한 언쟁을 치르는 등 친차베스 노동진영은 UNT-CBST의 양분구조, 계급주의파 분파들 간의 갈등, 계급주의파 성향 Marea Socialista의 코포라티즘파 노총 CBST 결합 등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게 되었다.<sup>4</sup>

이렇게 전체 조직노동 부문뿐만 아니라 친차베스 노동진영조차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는 가운데 차베스 정부는 노동조합 자율성을 중시하며 차베스 정부에 대해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지하는 계급주의파를 견제하며 탄압하는 한편 FSBT를 중심으로 한 코포라티즘파와 CBST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UNT-CBST 양분구조와 Marea Socialista의 선택에 대해서는 Marea Socialista(2012a; 2012b), Gómez(2012), Janicke(2010), Fuentes 면담(2009)을 참조할 것.

이러한 차베스 정부의 편파적 개입 방식은 친차베스 진영내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을 구축하며 차베스 정부와 집권정당에 대한 호응성을 높이는 반면 노동자들에게 대한 호응성을 희생함으로써 노동자 이해관계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정체·후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노동자 불만과 파업 투쟁

베네수엘라의 등록된 집회시위들 가운데 노사분규가 접하는 비중은 2010년 36%, 2011년 상반기 42%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Provea 2011a, 120-121; 2011b, 1-2). Provea에 따르면 표 4에서처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파업 건수는 3,190건으로서 연평균 798건의 파업이 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합법적 파업’(huelgas legales)은 426건으로서 연평균 85건에 불과하다(Provea 2010, 133-134). 정부발표 파업 건수는 Provea 집계 통계치의 10.7%에 불과한데,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합법적 파업 판단 기준이 투명하지도 않고 대단히 편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파업들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동자들이 이처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불만 수준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은 몇몇 파업투쟁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노동자 불만의 소재와 파업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안소아테기주 바르셀로나 공장 노동자들은 2009년 1월 공장점거를 시작한지 17일 뒤 경찰이 농성 노동자들의 해산을 시도하던 중 2명이 사살되며 두 달 이상 점거농성을 이어갔고, 8월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다시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공장폐쇄를 단행하고 150명을 정리해고했다. 2010년 10월 또다시 307명의 정리해고가 발표되자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는데, 미쓰비시 민주노조(Singetram)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건강안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는 한편, 노동부의 지지를 받으며 용역노동을 활용하고 어용노조(Sutremmc)를 조직하여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사측과 노동부를 비판했다.<sup>5</sup>

5 미쓰비시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는 Martínez(2011), Pearson(2010), WNU(2010), UNETE-Anzoátegui(2012)를 참조할 것.

비스켓 생산업체 Galletera의 카라보보주 발렌시아공장 노동자들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만료된 가운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012년 9월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파업돌입 후 3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주법원이 불법파업 판정을 내리자, 노동자들은 법원 판정에 항의하고 지방정부가 사측 편만을 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장근처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정부는 무장 방위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UNT 전국 지도자 Maspero를 포함한 9명의 노조지도자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노조지도자들은 다음날 석방되었지만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및 공적자산 파괴 등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고, UNT는 이에 항의하며 12월 12일 카라카스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했다.<sup>6</sup>

Polar 그룹의 EFE 아이스크림 카라카스 차카오공장에 2012년 5월 한 무장괴한이 노동조합 Sintrasohe 위원장 Abraham Rivas를 살해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Rivas는 2010년 파업투쟁을 전개한 이래 폴라르 그룹의 노동조합 조직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2012년 3월 폴라르 그룹내 21개 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전국음식료노동조합연맹(Fenactralbeca)을 결성한바 있다. 무장괴한은 Rivas의 집주소와 주요 방문 장소, 부인과 자녀들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판과 함께 입사 당시 사측이 촬영하여 만든 신분증 사진의 복사본을 지니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며 공장근처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범인을 공장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던 공범과 함께 인근 차카오 경찰서에 인도했었지만 두 명 모두 혐의 없다고 풀려났다. 노동조합측은 사측이 Polar 계열사 노동자들이 그룹 차원에서 결집되는데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Rivas의 연맹체 결성에 대해 보복하고 연맹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경비가 무장한 괴한을 회사안으로 들여보냈고, 사원 신분증 사진은 사측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범인이 소지했던 메모에는 Rivas를 “Polar 기업에 맞서 결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연맹체의 지도자”라고 소개되어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다.<sup>7</sup>

6 Galletera 투쟁에 대해서는 UNETE-Zulia(2012), Carlson(2012a; 2012b), Robertson(2012b)을 참조할 것.

7 폴라르 EFE 공장 투쟁에 대해서는 IDM(2012a; 2012b)를 참조할 것. 2008년 11월 아라구아주의 UNT 지도자 3명의 살해사건 및 2009년 5월 쿠마나 아르헨니스 바스케스(Cumaná Argenis Vazquez)의 도요타 노조간부의 살해사건 등은 실제 실현된 노동자 지도부 청부살인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IDM 2012b).

이처럼 노동조합의 파업 원인은 단체협약 체결 요구, 단체협약 위반 항의, 정리해고 반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지도자 청부살인을 포함한 노조탄압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등 단체협약의 체결 및 준수 요구다.<sup>8</sup>

차베스 정부 하에서 단체협약 숫자와 단체협약 적용 대상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1970년대에는 연평균 1,300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던 반면 차베스정권 출범 이후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건수는 연평균 63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는커녕 기존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사측의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이 부진한 것은 사적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들이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은 사적부문과 공공부문, 친차베스 진영과 반차베스 진영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기피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사측이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 결여를 반영하는 한편 정부의 잘못된 노사관계 개입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노조 지도부 선거 관장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CNE가 국민투표나 대통령선거 같은 중요한 전국적 투표 일정을 이유로 노동조합들이 적시에 지도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 지도부의 임기는 만료되고 사측은 임기 만료된 지도부의 단체협약 체결권 상실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부 또한 임기 만료된 지도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Iranzo and Richter 2008, 100-103).

이처럼 노동조합은 사측의 단체교섭 기피, CNE의 노조 지도부 선거 관장 의무 해태, 그리고 노동부의 임기만료 지도부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성 불인정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8 Provea(2010, 121; 2011, 114-115), Aporrea(2011)을 참조할 것.

9 보편화된 사측의 단체교섭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Provea(2008, 146-149; 2010, 123-129; 2011, 111-115), Lucena(2009, 11-14), García(2010)를 참조할 것.



큰 제약을 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측과 정부를 압박하여 단체교섭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단체협약 준수를 강제할 조직력과 동원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친차베스-반차베스 대립구도에 더하여 친차베스진영의 분과별 분절화에 따른 조직노동 부문의 심각한 분열상으로 인해 위력 있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기도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성공적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차베스 정부가 대부분의 파업투쟁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빈번하게 적용되는 법규정들을 보면, 형법 357조와 360조가 교통과 유통 과정, 통신체계에 장애를 주거나 항구, 부두, 사무실, 작업실, 공공서비스를 위한 설비들에 피해를 입힐 경우 3-10년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 제56조는 국가 기간산업에 갈등을 조장할 경우 5-10년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인민보호특별법 제24조는 식품 혹은 가격관리 상품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익서비스를 방해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노동자 파업들에 대해 형법, 국가보안법, 인민보호특별법 조항들을 적용하며 형사범죄로 취급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Provea 2008, 145-146; 2010, 130-134).

차베스 정부는 단체협약 체결 혹은 준수를 요구하는 파업활동 조차도 형사범죄화하는 수준을 넘어 혁명과정의 적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0</sup> 카라보보주 UNT 지도자 Alexis Polanco는 군부와 정부관리들로부터 출국압박과 함께 살해 협박을 받았고, 안소아테기주 소티요(Sotillo) 지자체 노조의 Antonio Acosta는 시장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인물들이 협박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안소아테기 미쓰비시자동차, 볼리바르주 도요타 Cumaná 공장과 Alcasa의 노조활동가들이 청부살인의 표적이 되어 살해위험에 노출되거나 살해되었어도 정부당국 혹은 사법기구에 의한 적극적 개입과 재발 방지 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카라카스 지하철공사와 카라카스 전기공사의 경우도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자 차베스가 직접 나서 파업이 발생하면 군인을 투입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단체협

10 정부의 파업활동 및 노조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협박에 대해서는 Provea(2010, 133-134; 2011, 118), Martínez(2011, 2-3), Iranzo(2011, 34-35)를 참조할 것.

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 또한 사적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 파업의 압도적 다수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 정책과 사용자로서의 반노동적 태도로 인해 중층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항의가 2012년 12월 10일 카라보보주 발렌시아의 시위나, 12월 12일 카라카스 시위처럼 노동부와 함께 사용자로서의 정부를 겨냥하여 노사분규를 해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sup>11</sup> 한편, 전반적인 파업권 제약 및 형사범죄화에 반발하며 2011년 6월 7일에는 혁명을 방어하고 정부살인과 대중투쟁 범죄화의 종식을 위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후 참여단위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총연맹 UNT 대표자들이 농민단체 대표자들 등과 함께 대중투쟁의 형사범죄화 반대 위원회 CCLP(Comité contra la Criminalización de las luchas populares)를 결성하기도 했다(Martínez 2011, 1-2).

파업행위의 주체와 성격은 차베스정권 초기 CTV의 정권전복을 겨냥한 정치적 총파업투쟁에서 점차 친차베스-반차베스를 망라하는 단체협약 체결과 준수 등을 촉구하는 사업장 단위의 사회경제적 파업투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파업투쟁이 탈정치화되는 과정을 거쳐 특히 세계유가 하락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와 공공부문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2009년부터 파업투쟁은 더욱더 격화되는 한편 차베스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도 심화되었다. 이처럼 차베스 정부 하에서 코포라티즘과의 영향력 강화로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이해관계 보호 활동으로부터 후퇴하는 가운데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노동자 불만이 고양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이 전개했지만 파업투쟁의 형사범죄화로 인해 노동조건 개선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 코포라티즘 체제의 작동 방식

차베스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친차베스 노동조합의 분열, 사측의 단체협약 체결 기피, 파업의 형사범죄화 현상은 차베스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관점에 의해 좌우될

11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과 노동자 저항에 대해서는 Delgado(2012), Robertson(2012b), Provea(2010, 129-130; 2011, 116-117), Castro(2011)를 참조할 것.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독극물로 규정하는 것은 차베스가 혁명 정부는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조합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베스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근거는 자신과 정부가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특히 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베스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파업활동을 이기주의 혹은 혁명의 적으로 규정하며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이다.<sup>12</sup>

차베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자율성을 포기한 노동조합으로서 계급주의파에 대비되는 코포라티즘파의 극단적 존재양식을 의미하며, 노동조합과 당·국가의 관계는 강한 국가가 당을 통해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노동조합은 당과 국가에 예속된 하위 파트너로서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것이다. 차베스가 노동조합과 노정관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방식은 “친구 아니면 적”<sup>13</sup>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양분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반차베스 진영을 조직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지만 친차베스 진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효율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차베스의 전략은 노동정책의 주체와 공공부문의 사용자 위치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PDVSA 사장 Ramirez가 혁명의 적들을 배제하고 혁명가들과만 단체교섭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친차베스 계급주의파 노조 지도자들이 청부살인을 당해도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어 범죄를 사주한 당사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확인될 수 있다.

차베스 정부와 노동운동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는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이중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어떻게 작동하며 차베스의 의지가 어떻게 관철되는지는 노동계 최대현안이었던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sup>14</sup> 2003년부터 시작된 노동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2010년 11월 9일 UNT가 주도하여 5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갖고 논란중인 단체협약 문제들을 해결할

12 차베스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서는 Chirino 면담(2009), Iranzo(2011, 33-34), Ilanzo 면담(2008), Lucena(2009, 14), Provea(2009, 102)를 참조할 것.

13 이 전략에 대해서는 조돈문(2010b)을 참조할 것.

14 노동법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Perez(2012), Boothroyd(2012b; 2012c), Reardon(2010; 2011a), Robertson(2011), Gómez(2012, 6-7)를 참조할 것.

것 등을 요구했는데, 그 핵심은 새로운 급진적 노동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것이었다. 차베스는 2011년 11월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2년 5월 1일 이전에 신노동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12월에는 신노동법안을 기획할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했다.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3명, 대법관 2명과 검찰총장, 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중소기업협회 회장과 3명의 법률전문가를 포함했고, 노동계 인사로는 FSBT 위원장 Wills Rangel 한 명이 참여했다.

차베스는 계급주의와 중심의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계급내 공론화 방식을 거부하고 조직노동의 체계적 참여를 배제한 채 전국적으로 공원, 광장, 공동체 센터 등에서 토론회들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5월 1일 신노동법(Ley Orgánica del Trabajo)을 공포하여 1997년 통과된 기존의 노동법을 대체하도록 했다. 통과된 신노동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육아휴가를 12주에서 25주로 연장하고, 사적부문의 외주하청노동을 금지하고, 퇴직수당을 부활하는 한편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수당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복원하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협으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노동조건 개선 내용들을 담았다. 신노동법에 의거하여 차베스는 최고노동위원회(Consejo Superior del Trabajo)를 구성하여 향후 3년 동안 신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한편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신노동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최고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18명의 위원들 가운데 노동계 인사는 5명인데, 이들은 친차베스진영내 계급주의파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FSBT 지도자 Oswaldo Vera와 CBST 위원장 Wills Rangel을 포함하여 모두 FSBT와 CBST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었다.<sup>15</sup>

차베스 정부가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협의하는 “길거리 의회주의”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선별하여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차베스 정부이며 차베스진영 조직노동 부문의 체계적 참여는 배제된 것이다. 또한 노동법 개정 관련하여 신노동법 기초 과정과 개정후 후속작업을 위한 최고노동위원회에 참여한 노동진영 인사들은 모두 코포라티즘파의 FSBT

15 신노동법 내용과 최고노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CBST(2012), Boothroyd(2012c), Venezuelananalysis (2012)를 참조할 것.

와 CBST 계열 인사들로서, 이들은 차베스 정부의 대화상대로 선택되었지만 노조의 정부정책 결정 과정 개입은 물론 노조 자율성마저 포기하고 예측적 파트너 관계를 수용한 분파들이다. 이렇게 차베스는 예측적 파트너 관계를 수용한 분파들만 하위 파트너로 포용하며 후견인의 위치에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코포라티즘과 FSBT가 새로운 노총 CBST를 출범시킴으로써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UNT에는 계급주의파만 남게 되었는데, UNT가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을 중시하며 노동조합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CBST는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보다 차베스정권의 방어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며 노동조합 자율성을 포기하고 차베스를 정점으로 한 정부와 당의 지침 실천을 중시한다. 결국 코포라티즘파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노동조합은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노동계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권과 정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는 UNT내 계급주의파를 견제하고 코포라티즘파를 강화하다가 CBST 출범 이후에는 차베스의 영향력과 노동부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여 UNT를 무력화하고 친차베스 노동진영내 CBST의 패권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sup>16</sup> UNT 재건 추진세력의 중심점 역할을 하던 계급주의파 *Marea Socialista*도 차베스 정부가 FSBT와 CBST의 관료주의를 거부하는 혁명적 노동운동 흐름들을 적의 앞잡이 혹은 변절자로 매도하며 분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계급주의파 성향의 PCV, CTR, CMR (*Corriente Marxista Revolucionaria*)과 함께 *Marea Socialista*도 FSBT-경영진-노동부의 합동작전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으며 소속 노동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와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한 *Marea Socialista*가 결국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 반한 코포라티즘파와 차베스 정부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도 마침내 CBST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계급주의파의 투항과 그에 따른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을 완성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편향적 개입과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에 대한 일반 노동자 대중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2012년 7월 치러진 국유 철광회사 *Ferrominera*의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FSBT-CBST 측 후보가 차베스 정부와 집권정당 및 친차베스 주지사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주의

16 차베스 정부의 개입과 코포라티즘파의 패권 구축에 대해서는 Gómez(2012, 10-11), Sanchez (2012), Iranzo(2011, 34-35), Hernández and Romero(2008)를 참조할 것.

파 후보 Ruben Gonzalez에 패배했다. 이처럼 코포라티즘파와 계급주의파의 대립에서 코포라티즘파 후보가 패배한 사례는 Alcasa와 Carbonorca 등 여타 국유기업들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CBST의 핵심을 구성하는 FSBT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으며 전반적으로 대중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차베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사적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파 패권 하에서 노동조합 지도부와 노동자 대중과의 괴리가 심화되면서 노동조합의 내적 통합과 조직력 강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 맺음말

### 노동조건 개선 실패

차베스 정부 하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고용규모의 증대로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소득은 감소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사회개발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빈곤층은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동인은 노동조합 조직력과 단체협약 적용인데, 차베스 정부 하에서 노동조합 조직력은 약화되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베스 정부 하에서 노동조합 숫자는 급증했지만 노조원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분파별 분열이 심화된 결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와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 방식으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건수가 감소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하락하게 되었다.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기피하고 체결된 단협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노조활동가들의 청부살인 현상이 확산되며 기업 경영진과 정부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노동조합

17 노동자들의 평가와 노조의 전망에 대해서는 Sanchez(2012), Fuentes 면담(2008)을 참조할 것

활동을 위한 외적 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 노동조건 개선 억제 메커니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되기 어렵게 한 제약조건들로는 정부의 부적절한 노동정책,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분열, 노동조합 파업활동의 범죄화를 꼽을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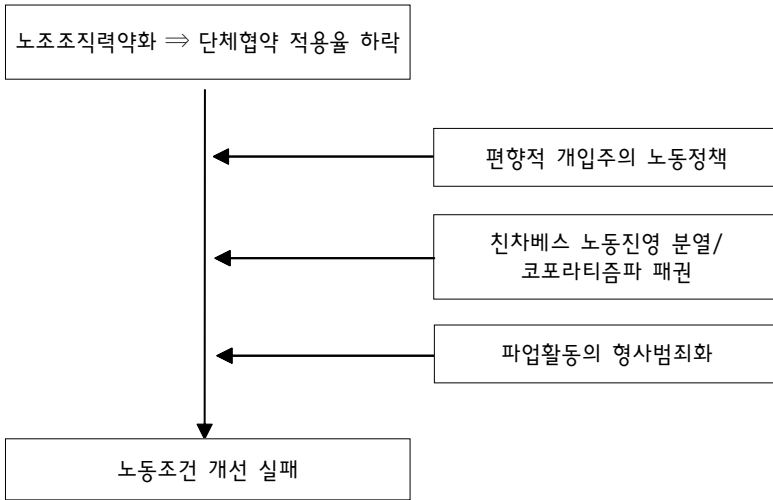


그림 1. 의사 코포라티즘 체제의 노동조건 결정 메커니즘

차베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지만 물가상승률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고,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률도 매년 조직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없이 차베스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다. 공공부문 임금인상률도 노사교섭 혹은 최소한의 노사협의를 없이 차베스가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차베스 정부는 노동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노동의 제도적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체계적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 한편, 차베스와 정부는 CNE와 노동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성향의 노조 분파를 지원하고 노조 성향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권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등 노동통제 목적을 위해 매우

편향적인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노동조건 개선에는 기여할 수 없었다.

친차베스 노동진영은 2003년 UNT를 건설했지만 분파갈등으로 인해 위원장 선거도 치르지 못했는데 그 핵심에는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의 갈등 구도가 있다. 2007년 차베스가 PSUV 창당을 추진하면서 참여를 거부하는 계급주의파를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창당과정에 참여하는 코포라티즘파의 발언권을 강화해 주었다.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통합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코포라티즘파를 지원하는 차베스의 개입 방식은 코포라티즘파가 별도의 노총 CBST를 창설하게 함으로써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는 UNT-CBST의 분립구도를 고착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베스와 정부의 편파적 노동조합 활동 개입으로 인해 코포라티즘파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노동자 이해관계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일상활동이 후퇴하게 된다.

사측의 단체협약 체결 거부와 단체협약 위반 및 그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파업투쟁을 전개하게 하는데, 노동조합의 분열로 인해 유의미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기도 어려우며 파업투쟁 동원에 성공하더라도 합법적 파업으로 판정받을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파업투쟁의 합법성이 부정됨으로써 파업투쟁을 주도한 노동조합 지도부와 노조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파업활동은 형법과 국가보안법 규정들이 적용되어 형사범죄로 취급됨으로써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친차베스 노동조합의 파업들도 혁명과정의 적으로 매도되며 탄압을 받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 파업활동이 노동기본권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파업투쟁은 많은 희생을 수반할 뿐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건 개선 같은 투쟁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 의사 코포라티즘 체제의 작동 방식

노동조건 개선을 어렵게 하는 편향적 개입주의 노동정책, 친차베스 노동진영의 분열과 코포라티즘파의 패권, 노동자 파업의 합법성 부정과 형사범죄화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차베스를 정점으로 하는 노동통제 체제에 의해 형성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차베스는 노동조합 자율성을 독극물로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베스가 관장하는 코포라티즘 체제에서 허용되는 노정관계는 위계적 관계일 뿐이다. 국가는 당을 통해 노조를 지배하고 노조는 하위 파트너로서 정부와 당의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행위주체들이 합의를 도출하여 국가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서구의 사회적 코포라티즘(societal corporatism)과는 달리 국가가 권력수단들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의 한 형태로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 코포라티즘(pseudo-corporatism)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 코포라티즘 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은 노조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차베스정권 수호와 정치일정에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종속시켜야 한다. 그것이 친차베스 노동진영 내에서 코포라티즘파가 계급주의파에 맞서 관철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 방식이며, 코포라티즘파의 취약한 대중적 지지기반으로 인해 차베스가 CNE와 노동부를 활용하며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코포라티즘 체제의 작동방식은 노동계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차베스는 계급주의파가 제안한 노동계급내 공론화 방식을 거부하고 코포라티즘파 노동계 인사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안 기획 위원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대통령 선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차베스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은 “친구 아니면 적”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양분전략으로서 계급주의파 가운데 온건파들을 압박하여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을 수용하게 하며 강경 계급주의파를 분쇄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략은 *Marca Socialista*가 UNT를 탈퇴하여 CBST에 가입하여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을 완성한 사건에서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이해관계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과제를 경시하는 코포라티즘파의 패권과 노동조합 활동 방식에 대한 노동자들의 부정적 평가는 코포라티즘파의 노조 위원장 선거 패배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코포라티즘파의 패권 구축과 함께 친차베스 노동진영 핵심과 노동자 대중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며 노동조합의 내적 통합과 조직력 강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ABN(2007), “Fuerza Bolivariana de Trabajadores analizará en congreso papel de UNT,” 2007.01.25., <http://psuv.blogspot.com/2007/01/fuerza-bolivariana-de-trabajadores.html>
- Alfonzo, Carmen Sofía(2010), “Trabajadores públicos tienen cinco años sin recibir aumento de salario,” *El Nacional*, 2010.11.16.
- Aporrea(2011), “Los trabajadores de Toyota-Cumaná tienen dos semanas en huelga,” 2011.08.15, <http://aporrea.org>
- Aranguren Alvarez, Williams(2010), “Violación a la normativa laboral en Venezuela: un análisis desde los servicios de inspección del trabajo,” *Gaceta Laboral*, Vol. 16, No. 2, pp. 195-214.
- AVN(2012), “Four Million Jobs Created Under the Government of President Chávez,” AVN, 2012.07.13.
- Boothroyd, Rachael(2011), “Chávez Responds to Workers’ Protests, Promises Historic New Labour Law,” *Venezuelanalysis*, 2011.11.13.
- \_\_\_\_\_ (2012a), “Venezuelans Begin Registering in Government’s Knowledge and Work Mission,” *Venezuelanalysis*, 2012.01.17.
- \_\_\_\_\_ (2012b), “Drafting of New Venezuelan Labour Law Moves into Final Phase, Instrument for ‘Highest Stage of Socialism,’” *Venezuelanalysis*, 2012.03.22.
- \_\_\_\_\_ (2012c), “Venezuela’s Chavez Signs New Labour Law in Act of ‘Social Justice’ for Workers,” *Venezuelanalysis*, 2012.05.01.
- \_\_\_\_\_ (2012d), “Dismissal of Sidor President Denounced as “Contradiction” for Worker Control,” *Venezuelanalysis*, 2012.08.18.
- Carlson, Chris(2012a), “Labor Disputes in Venezuela Lead to Protests,” *Venezuelanalysis*, 2012.11.14.
- \_\_\_\_\_ (2012b), “Unions March in Venezuela over Labor Rights,” *Venezuelanalysis*, 2012.12.13.
- Castro, Jesús(2011), “Hay un estado de indefensión de los trabajadores en el país,” *Notitarde*, 2011.09.03.
- CBST(2012), “Consejo Superior Del Trabajo,” 2012.05.22, <http://centralbst.org>
- CCURA(2007a), “Dirigentes de la corriente C-CURA de la UNT, acuerdan sumarse a la construcción del PSUV,” *Aporrea*, 2007.05.09.
- \_\_\_\_\_ (2007b), “Exitoso Plenario Nacional Unitario de la UNT,” *Marea*, 2007.08.11, pp. 10-11.
- Chirinos Portillo, Lisbeth Milena and Jorge Jesús Villasmil Espinoza(2010), “El diálogo social y la concertación como práctica política en la Venezuela contemporánea,”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año 2010, Vol. 16, No. 4.
- Cho, Donmoon(2010a), “Venezuela Jwapajeonggwongwa Nodongjohapwoondonggeui Dilemma(The Leftist Regime and the Dilemma of Labor Union

- Movement in Venezuela),”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 16, No. 2, pp. 77-102.
- \_\_\_\_\_ (2010b), “Venezuela Chavez Jeonggwongwa Boolahnjeongseonguei Jeongchi (Chávez Regime and the Politics of Instability in Venezuela),” *Gyeongjewa Saboe*(Economy and Society), Vol. 85, pp. 183-210.
- Delgado, Yosmary(2012), “Carabobo: Trabajadores y Trabajadoras continúan conflicto con la Gobernación,” 2012.12.11, <http://www.aporrea.org>
- Díaz, Ana(2011), “El gobierno tiene engavetadas 300 convenciones colectivas,” *El Nacional*, 2011.05.01.
- Ellner, Steve(2008), *Rethinking Venezuelan Politics: Class, Conflict, and the Chávez Phenomenon*, London: Lynne Rienner.
- FSBT(2007), “Esperan ley para formalizar consejos de trabajadores,” *Últimas Noticias*, 2007.07.20.
- García, Daniela(2010), “Discusión de contratos colectivos cayó 87% en gestión de Chávez,” *La Verdad*, 2010.06.23.
- Gómez, Gonzalo(2012), “The Revolution Will Not Be Decreed: An Interview with Gonzalo Gómez, Marea Socialista,” *The Bullet: Socialist Project E-Bulletin*, Vol. 682, 2012.08.17.
- Hernandez Alvarez, Oscar and Jacqueline Richter Duprat(2010), “Democracia y Derecho del Trabajo: Referencia al caso venezolano,” *Gaceta Laboral*, Vol. 16, No. 2, pp. 175-193.
- Hernández Alvarez, Oscar and Antonio Romero Milano(2008), “Temas relevantes de las relaciones laborales contemporáneas en Venezuela,” *Revista Gaceta Laboral*, Vol. 14, No. 3, pp. 392-426.
- IDM(2012a), “Venezuela: Foiled Assassination Plot Against Trade Union Leader,” *In Defence of Marxism*, 2012.05.25, <http://www.marxist.com>
- \_\_\_\_\_ (2012b), “Foiled Attempt to Kill a Trade Union Leader in Venezuela: Campaign for Justice,” *In Defence of Marxism*, 2012.06.01, <http://www.marxist.com>
- Iranzo, Consuelo(2011), “Chávez y la Política Laboral en Venezuela,” *Revista Trabajo*, Vol. 5, No. 8, Trabajo y sindicatos durante los gobiernos de izquierda (Tercera época), pp. 5-37.
- Iranzo, Consuelo and Jacqueline Richter(2008), “Los principales problemas del sindicalismo en la actualidad,” *UCAB, Una Lectura Sociológica de la Venezuela Actual IV*, Caracas: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pp. 91-128.
- Janicke, Kiraz(2010), “Venezuelan Unionists Push to Re-found the National Union of Workers,” *Venezuelanalysis*, 2010.04.26.
- Lebowitz, Michael(2006), *Build It Now: Social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Libertario(2008), “Sindicalismo entre burocratas y sicarios,” *El Libertario, Venezuela*, 2008.12.23.

- Lucena, Héctor(2007), *Lo laboral en tiempos de transición*, Valencia, Venezuela: Universidad de Carabobo.
- \_\_\_\_\_ (2008), “Revolución bolivariana y sindicalismo,” *Revista Veredas, Revista de Pensamiento Sociológico*, Vol. 16,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 \_\_\_\_\_ (2009), “Estado y relaciones de trabajo: intervención para fragmentar,” 15 de Abril 2009.
- \_\_\_\_\_ (2010a), “Venezuela: Reestructuración productiva en Venezuela: balance laboral,” in Enrique de la Garza Toledo and Julio Cesar Neffa(eds.), *Trabajo y modelos productivos en America Latina: Argentina, Brasil, Colombia, Mexico y Venezuela luego de las crisis del modo de desarrollo neoliberal*, Buenos Aires, Argentina: CLACSO, pp. 377-433.
- \_\_\_\_\_ (2010b), “El enfoque de las relaciones industriales y los estudios laborales,” *Relaciones laborales*, Vol. 22, pp. 36-51.
- \_\_\_\_\_ (2011), “Realidad y perspectivas de los estudios del trabajo,” 2011.02.11.
- Marea Socialista(2012a), “Habíamos retado a la Dirección del PCV a debatir de cara a los trabajadores y no se han hecho presentes,” *Prensa Marea Socialista*, 2012.12.03.
- \_\_\_\_\_ (2012b), “Venezuela After Chavez’s Presidential Victory: Interview with Members of Marea Socialista(interview by Franck Gaudichaud),” *Europe Solidaire Sans Frontieres*, 2012.10.09.
- Martínez, Félix(2011), “Urgente unificar y dar respuesta a los casos de criminalización de trabajadores, campesinos, pobladores y bases revolucionarias,” 2011.08.30, <http://www.aporrea.org>
- Mather, Steven(2010), “Two Day Worker Summit Expresses Content and Discontent,” *Correo Del Orinoco International*, 2010.09.29.
- Pearson, Tamara(2010), “Venezuelan Mitsubishi Workers Protest Further Firings and Government Treatment,” *Venezuelananalysis*, 2010.10.06.
- \_\_\_\_\_ (2011a), “Coca-Cola Workers on Strike in Carabobo, Venezuela,” *Venezuelananalysis*, 2011.01.18.
- \_\_\_\_\_ (2011b), ““We don’t Need Coca-Cola” Says Venezuela’s Chavez,” *Venezuelananalysis*, 2011.02.07.
- \_\_\_\_\_ (2011c), “Venezuela’s Minimum Wage to Increase 26.5% in 2011,” *Venezuelananalysis*, 2011.04.26.
- Perez Borges, Stalin(2012), “Entrevista: A Referendum is Necessary so the Working People Can Approve the New Labour Law,” *Marea Socialista Press*, 2012.03.27.
- Perlasca Navas, Ana Carla(2011), “Externalización laboral sobre los actores sociales de los sistemas de producción,” *Observatorio Laboral Revista Venezolana*, Vol. 7, No. 4, pp. 39-53.
- Prensa Presidencial(2011), “Noticias: nace la central bolivariana socialista de trabajadores y trabajadoras,” *Prensa Presidencial*, <http://www.chavez.org.ve>

- Provea(2008),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Venezuela: Informe Anual, Octubre 2007/Septiembre 2008*, Caracas: Provea.
- \_\_\_\_\_ (2009),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Venezuela: Informe Anual, Octubre 2008/Septiembre 2009*, Caracas: Provea.
- \_\_\_\_\_ (2010),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Venezuela: Informe Anual, Octubre 2009/Septiembre 2010*, Caracas: Provea.
- \_\_\_\_\_ (2011a),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Venezuela: Informe Anual, Octubre 2010/Septiembre 2011*, Caracas: Provea.
- \_\_\_\_\_ (2011b), “The 2011 Provea Report Detects Stagnation of the Struggle against Poverty and Improvement of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Situation,” *Provea*, 2011.12.07.
- Puntes, Suhelis Tejero(2010), “Nómina estatal se ha abultado 79% en la última década,” *El Universal*, 2010.10.10.
- Reardon, Juan(2010), “Venezuelan Workers March for More Participation and More Rights,” *Venezuelanalysis*, 2010.10.11.
- \_\_\_\_\_ (2011a), “Venezuelan Workers March in Support of Government, Push for New Labor Law,” *Venezuelanalysis*, 2011.02.11.
- \_\_\_\_\_ (2011b), “Minimum Wage Set to Rise Once Again, Says Venezuela’s Chavez,” *Venezuelanalysis*, 2011.04.07.
- Reyes, Yolanda Ojeda(2010), “Sindicatos-convencciones colectivas y revolución, una difícil convivencia,” *El Mundo*, 2010.03.04.
- Robertson, Ewan(2011), “Venezuela’s Chavez Establishes Presidential Commission to Draft New Labour Law,” *Venezuelanalysis*, 2011.12.11.
- \_\_\_\_\_ (2012a), “Venezuela’s Minimum Wage to Rise 32.25% in 2012,” *Venezuelanalysis*, 2012.04.09.
- \_\_\_\_\_ (2012b), “Fury over Violent Dispersal of Worker Protest in Venezuela,” *Venezuelanalysis*, 2012.12.10.
- Sanchez, Roberto Lopez(2012), “A propósito de las elecciones en Ferrominera,” *Marea Socialista*, 2012.07.31.
- UNETE-Anzoátegui(2012), “No a la represión contra los trabajadores de Galletas Carabobo,” 2012.12.10, <http://www.aporrea.org>
- UNETE-Zulia(2012), “Zulia: dirigentes de la UNETE rechazan represión de la guardia nacional contra dirigentes sindicales,” 2012.12.05, <http://www.aporrea.org>
- Valverde, Marcos David(2011), “Con presencia de la milicia Ferrominera fortalece el socialismo,” *El Universal*, 2011.04.05.
- Venezuelanalysis(2012), “Chapter by Chapter Summary of Venezuela’s New Labour Law,” *Venezuelanalysis*, 2012.05.09.
- Vera, Oswaldo(2007), “La UNT no representa a los Trabajadores,” *El Mundo*, 2007.07.31.
- Wilpert, Gregory(2007), *Changing Venezuela by Taking Power: The History and Politics*

*of the Chávez Government*, London: Verso.

WNU(2010), "Venezuela: 15 Cops Sentenced in Unionists' Deaths," *Weekly News Update*, 2010.08.11.

## Interview

Chirino, Orlando(2009), CCURA leader, 2009.07.29/31.

Fuentes, Fred(2008), Green Weekly Review news reporter, Marea Socialista, 2008.07.29/30, 08.01.

\_\_\_\_\_ (2009), Green Weekly Review news reporter, Marea Socialista, 2009.07.04/19.

Iranzo, Consuelo(2008), Professor of Sociology, CENDES, UCV, 2008.07.17.

Iturraspe, Francisco(2008), Professor of Law,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UCV), 2008.07.

Lucena, Hétor(2008),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dad de Carabobo, 2008.07.14/31.

\_\_\_\_\_ (2009),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dad de Carabobo, 2009.07.09.

\_\_\_\_\_ (2010),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dad de Carabobo, 2010.08.08.

Tremont, Arturo(2009), General Secretary of SINFUCAN, 2009.07.23.

## News Media

*El Libertario, Venezuela*

*El Nacional*

*El Universal*

*Notitarde*

Article Received: 2013.01.15

Accepted: 2013.02.16